

세션1 대외환경 및 거시

대외경제 여건의 구조변화와 대응과제

정대희 KDI 거시·금융정책연구부장





Contents

01.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

02. 지정학적 위험과 공급망 정책

03. 글로벌 기후대응 강화

04. 디지털화의 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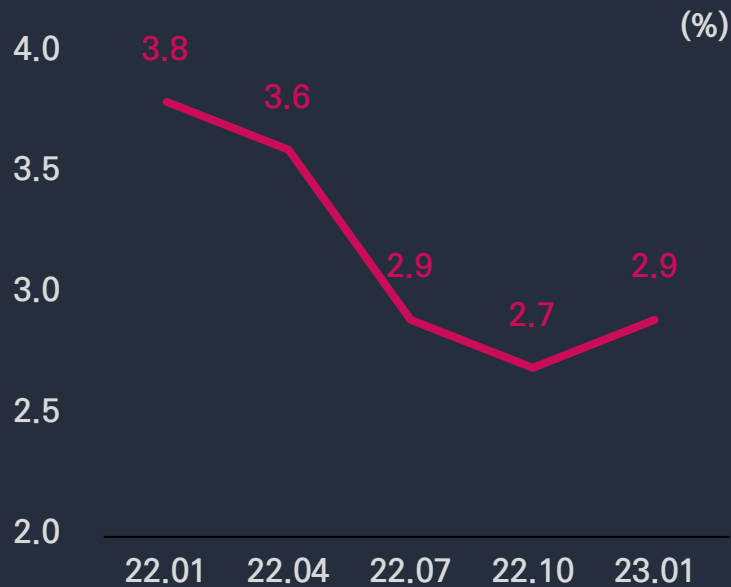
05. 시사점 및 대응과제

0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암울해진 세계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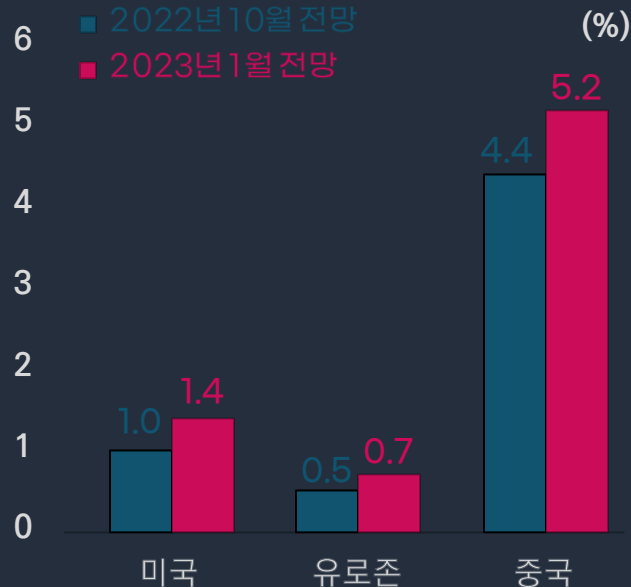
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

- 지난 겨울 이상 고온에 따른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,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성장률은 최근 상향 조정되었으나,
-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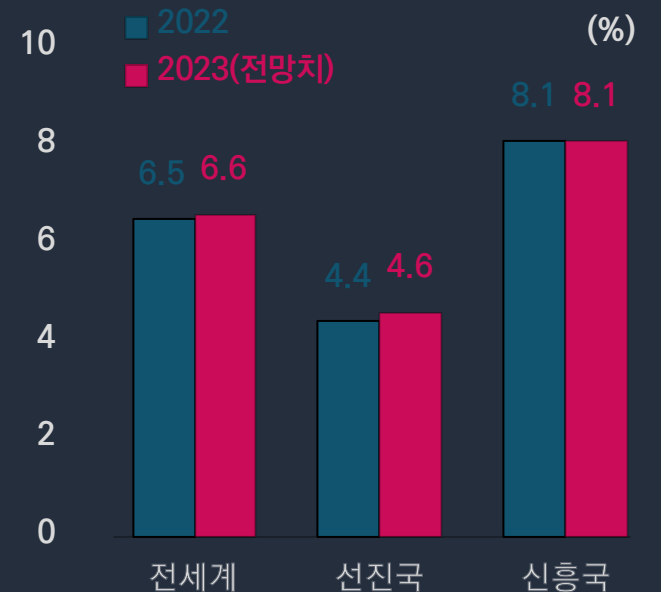
2023년 세계경제 전망



2023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



세계 소비자물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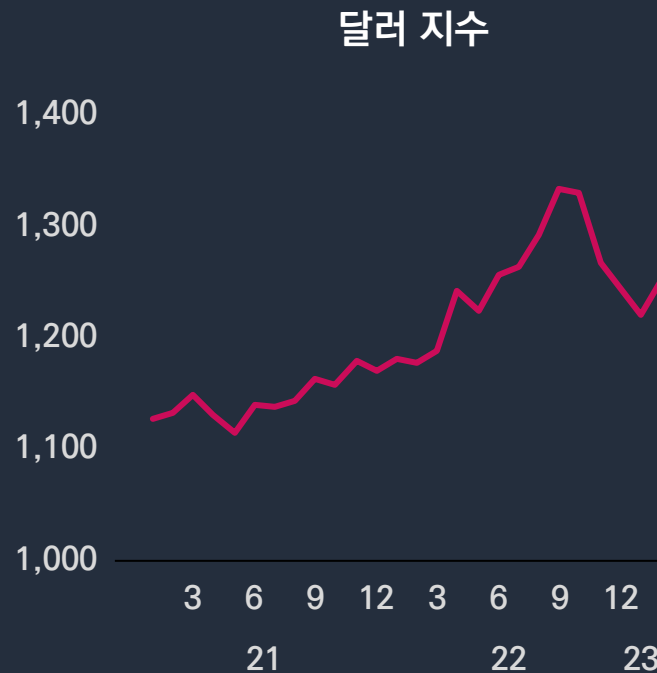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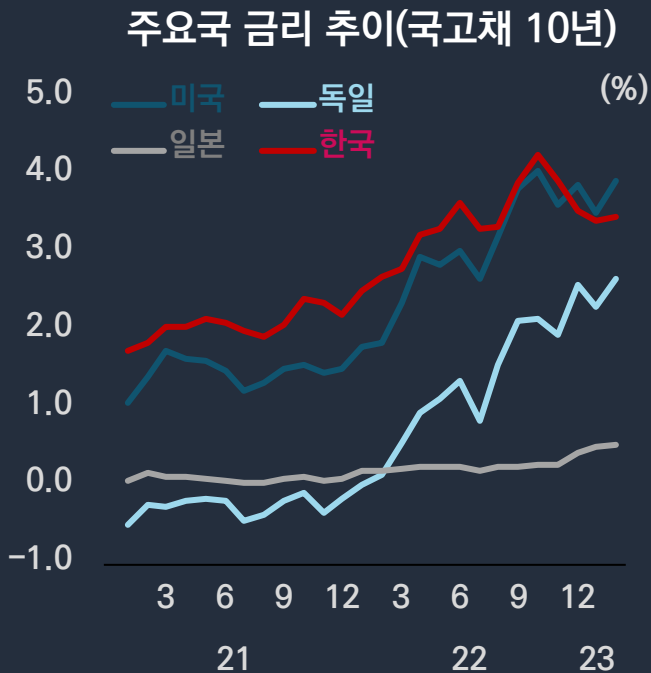


주: 세계경제 전망의 가로축은 전망시점을 나타내며, 주요국 경제성장과 세계 소비자물가 전망은 IMF의 2023년 1월 전망치임.
자료: IMF.

이 고강도 긴축을 통한 고물가 대응

달러화의 초강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, 고금리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

- 주요국 장기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며, 특히 달러화는 여타통화대비 강세를 보였음.
- 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안정세를 보였으나, 금융불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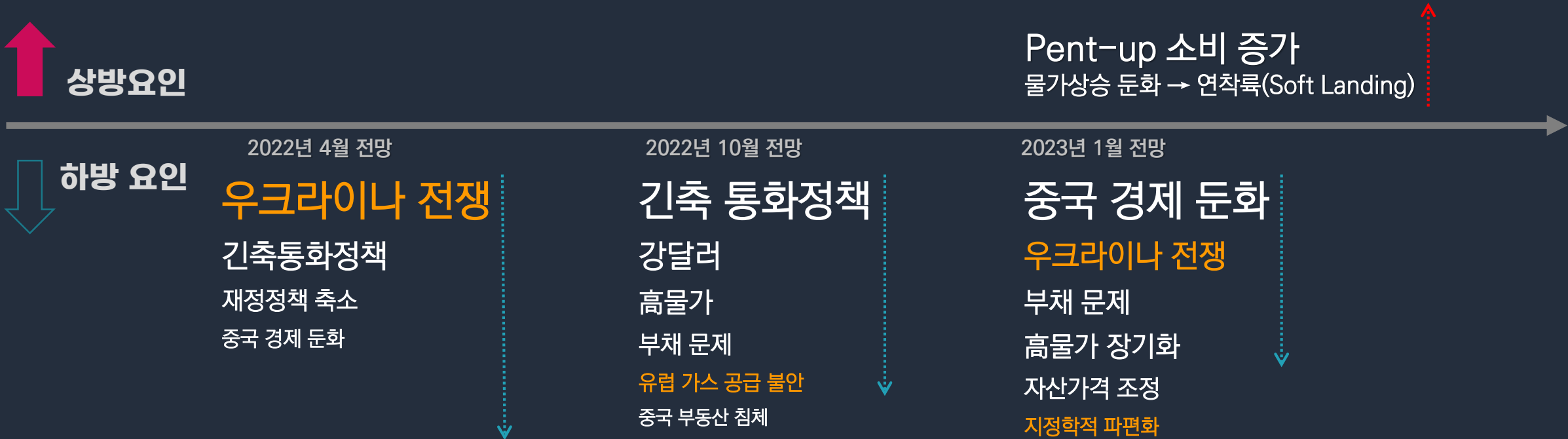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.

이 세계경제의 위험요인

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충격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을 통해 저성장, 고물가, 고금리 환경을 가져왔으며,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

- 지정학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, 공급망 취약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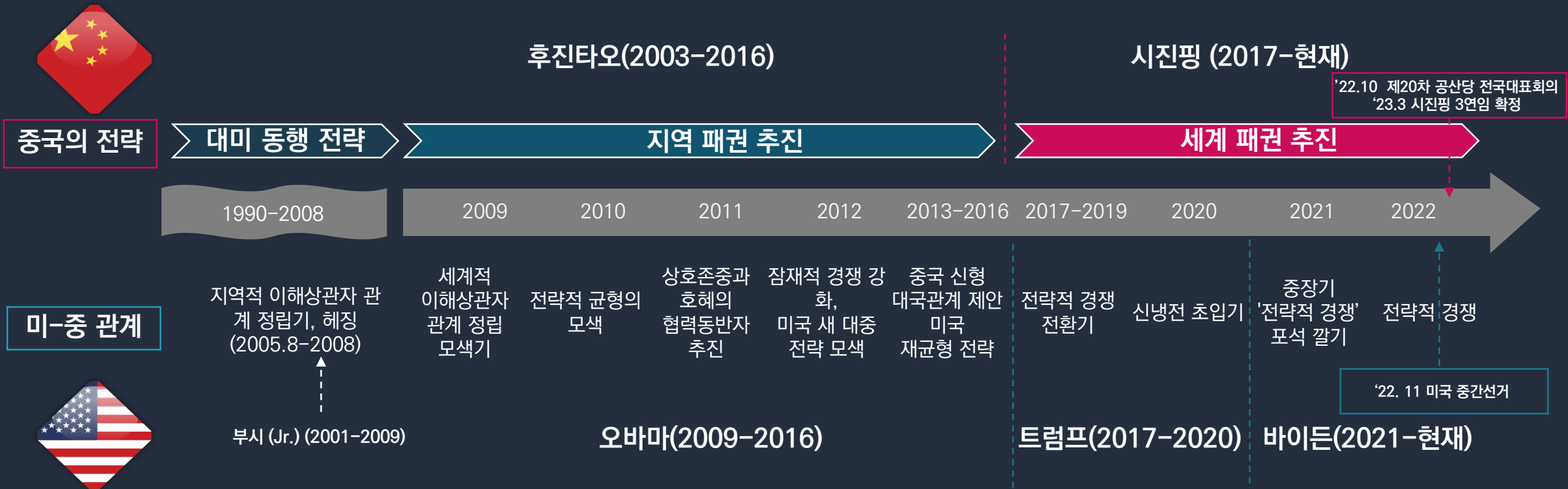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세계경제의 상방 및 하방요인은 IMF의 세계경제전망(WEO) 보고서를 참고해서 작성함.
2) 주황색은 지정학적 요인을 의미
자료: IMF.

02 미중 전략경쟁의 연혁

시진핑의 세계 패권 추진 전략에 대응하여,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 경쟁 관계를 설정

- 직접적인 충돌이나 대립은 회피하되 가치경쟁, 동맹연합, 기술경쟁, 행동준비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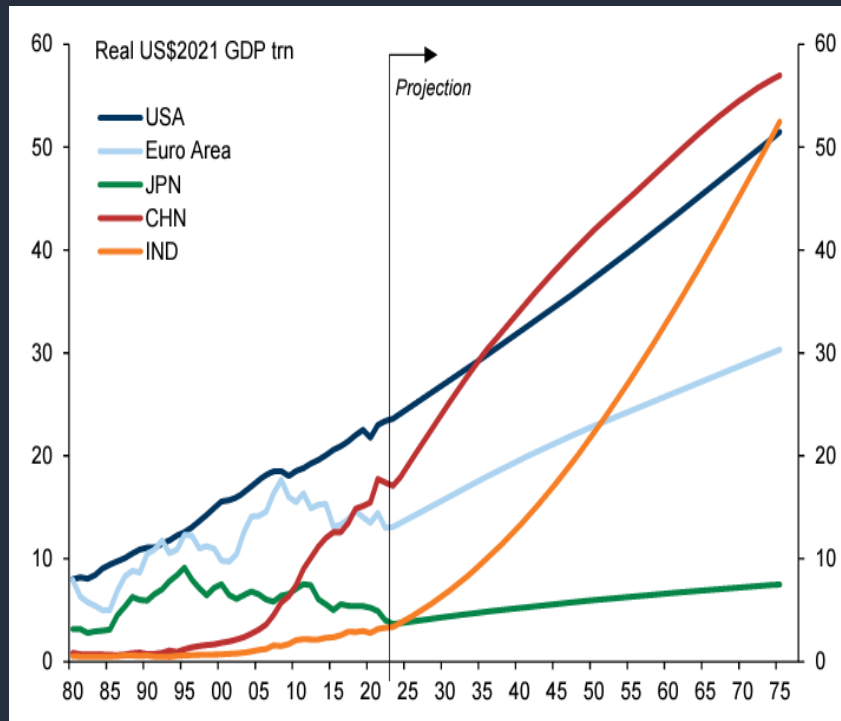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김흥규(2009); 김흥규 편(2021) 참고;
 민정훈(2022.11.18),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, 2022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;
 Huaxia(2023), Xinhua, <https://english.news.cn/20230314/ce3f051bb3cf423d926c24d0474fd48d/c.htm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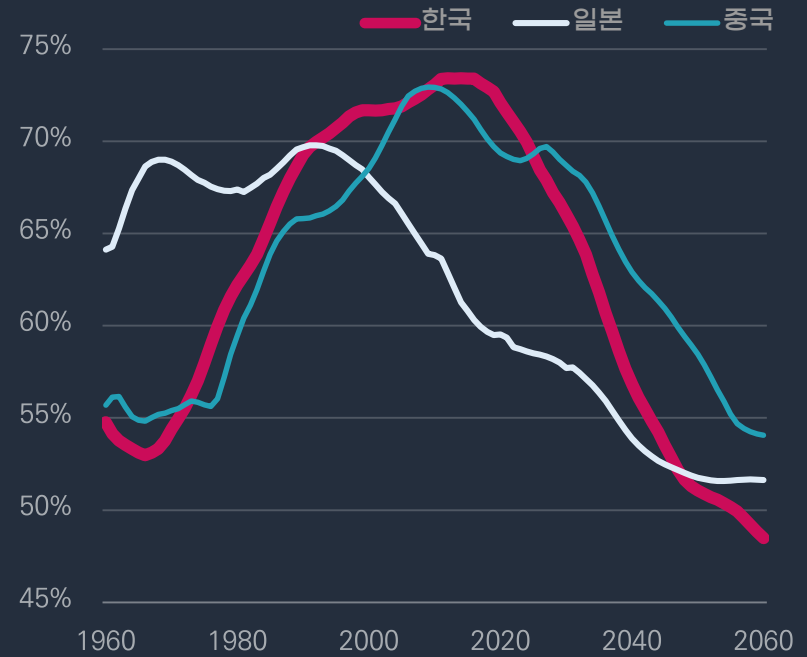
02 <참고: 미국과 중국의 장기 GDP 전망과 불확실성>

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뛰어넘는 시점은 대략 2035-40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나, 미중 전략경쟁 및 중국 인구구조 등으로 장기 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

주요국 장기 GDP 전망



한중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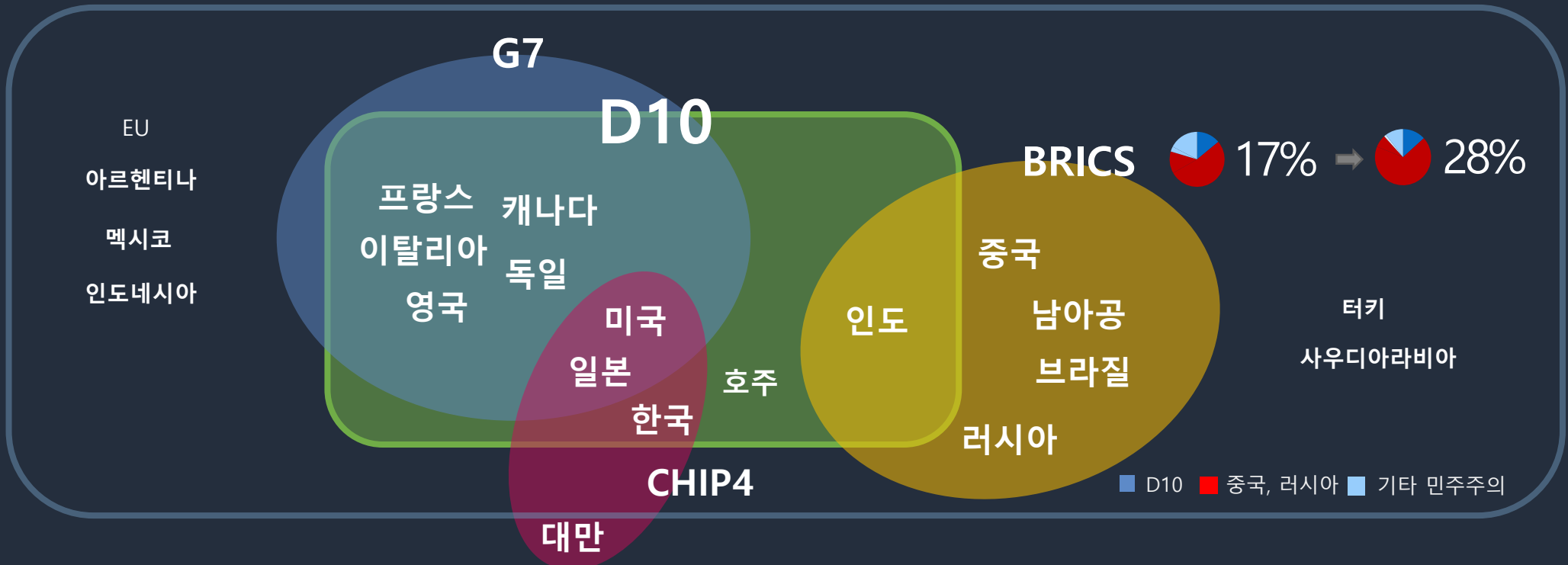


02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질서 개편 움직임

미중 전략경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G20 체제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

주요 국제협의체의 구성 변화

G20  85% →  75%



주: 파이그래프와 숫자는 2009, 2021년 해당 그룹 진영 비중 및 세계 GDP의 그룹 비중을 나타냄.

02 EU와 일본의 미중 전략경쟁 대응

EU는 역내 공급망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, 일본은 필수불가결한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공급망에서의 초크 포인트 확보를 강조



미국 : 중국과의 전략경쟁

- 대중견제 / 동맹연합 / 가치경쟁 / 기술경쟁
- 공급망 및 산업기반 강화와 더불어 기후 대응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21세기형 산업정책 추진
- 인플레이션감축법 (IRA)
- 반도체지원법 (US Chips Act)



중국 : 쌍순환

- 대미견제 / 일대일로 → 홍색공급망
- 미국 주도 글로벌 기술체제 디커플링에 대응하여 기술자립화 정책을 강화
- “중국제조 2025”(2015), “ 14.5 계획”(2021) 등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 지원
- 조립대국 → 제조강국



EU : 열린 전략적 자율성

- 핵심 원자재, 기술, 식량, 인프라 등 전략 부문에 대한 대외 의존도 축소와 유럽 내 생산 강화
- 핵심원자재법 (CRMA)
- 탄소중립법 (Net-Zero Industry Act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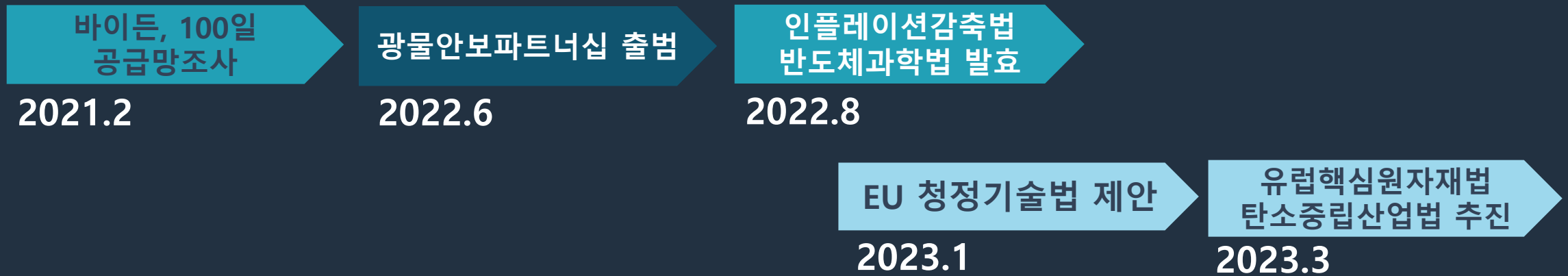
일본 : 전략적 불가결성

- 필수불가결한 기술 확보
- 미·중 전략적 경쟁 대응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
- 신기술 선점 경쟁을 위해 과학기술종합정책인 통합 이노베이션 정책을 추진(2020.7.)

02 미국, EU의 공급망 정책

미국과 유럽은 특정 전략 품목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보조금, 세제혜택 등 방안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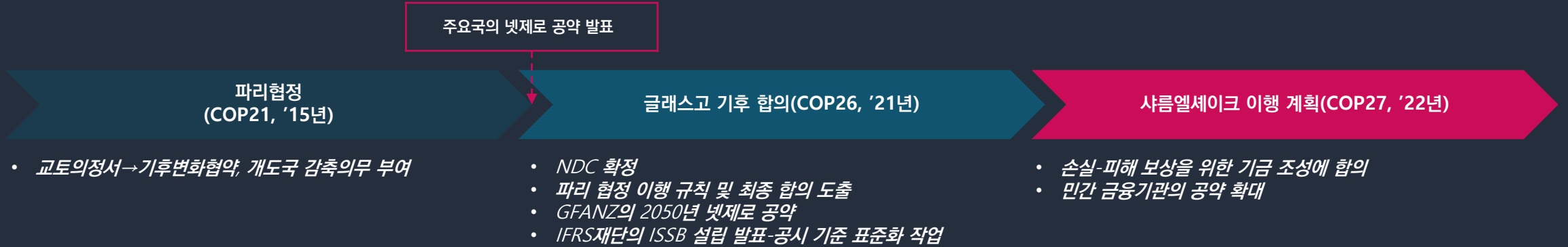
- 미국은 4대 핵심분야(반도체, 배터리, 희토류, 바이오)에 대한 공급망 조사 이후, 인플레이션 감축법, 반도체과학법 등을 제정하여 중국 의존도 축소 중심의 다변화와 현지 생산화를 추진
 -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배터리 핵심광물 및 부품 요건이 충족되는 미국조립 친환경차에 대해 최대 7,500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부여
- EU도 핵심광물법,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추진하여 배터리와 관련 중요 광물의 탈 중국화와 현지화를 추진
 - 핵심광물법은 '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역내 10% 추출, 40% 가공, 15% 재활용 역량 확보를 목표



참고: The White House(2021), European Commission (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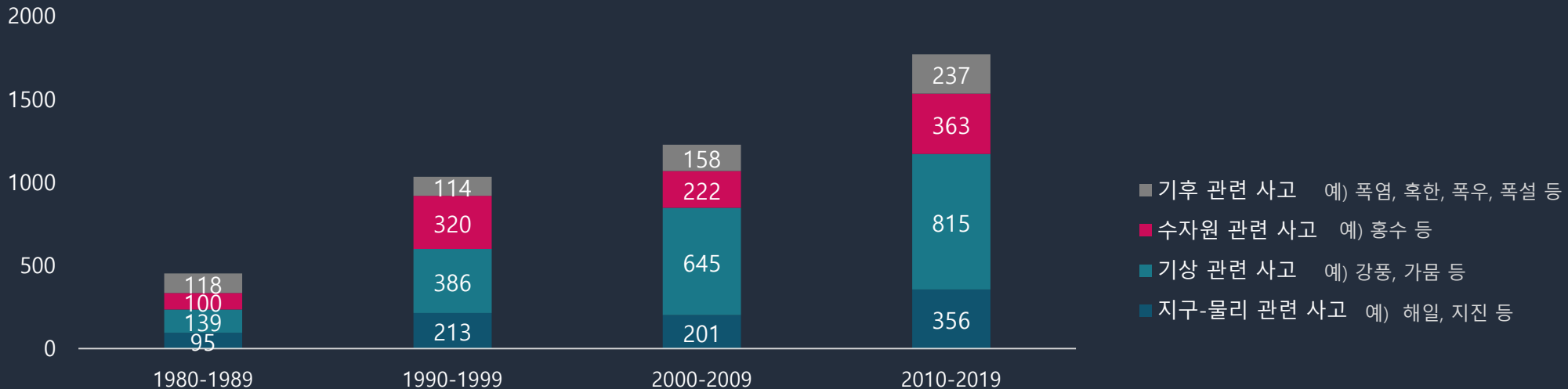
03 코로나19 이후 기후대응 국제논의 강화

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가운데,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 논의가 강화되면서 금융투자, 기업공시, 국제무역 등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



단위: 십억 달러

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경제적 손실 추정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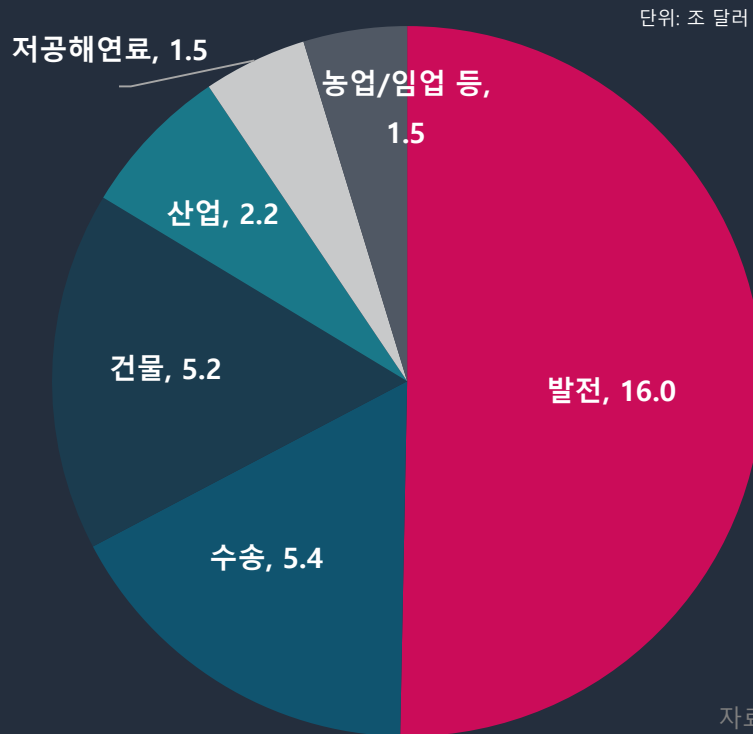
자료: : FSB(23, November, 2020.),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for Financial Stability

03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수요와 민간 부문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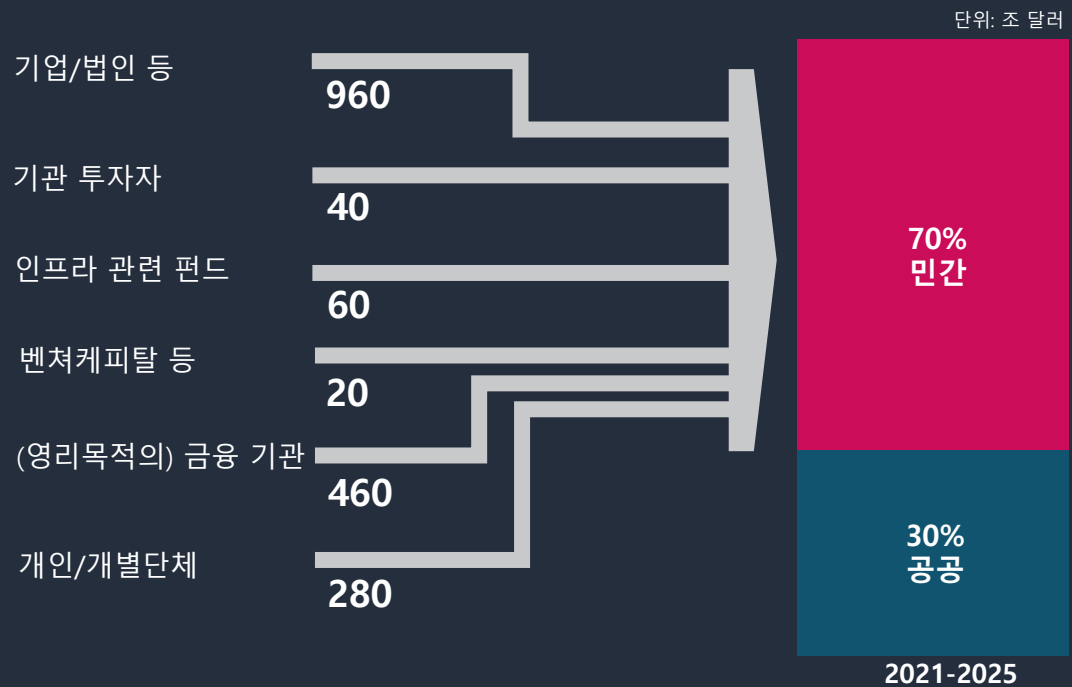
탄소중립(넷제로)을 달성하려면 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125조 달러 규모의 기후 투자가 필요

- 글로벌 경제를 넷제로 달성 가능 경로에 올려놓기 위해 2021-30년 기간 중 필요한 투자는 발전 16조 달러, 수송 5.4조 달러, 건물 5.2조 달러, 산업 2.2조 달러 등 총 32조 달러 규모
- 이는 2016-20년 기간에 비해 2021~2025년 탈탄소화 투자를 3배로 늘리는 수준

6개 핵심 부문별 필요한 투자비용 (2021-30년)



넷제로 달성을 위한 2021-25년 연평균 민간 투자



자료: Climate Champions(2021), What's the cost of net zero? <https://climatechampions.unfccc.int/whats-the-cost-of-net-zero-2/>
UNFCCC 산하기구 Race To Zero 홈페이지 및 Net Zero Financing Roadmaps: Key Messages 참고

03 통합된 기후관련 공시기준

국제회계기준(IFRS) 산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(ISSB)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공급망 차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공시를 포함한 강화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발표

- '21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에서 ISSB 설립을 결정
 - ISSB는 '23년 중순 공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,
 -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'25년, 모든 코스피 상장사 '30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시행하는 계획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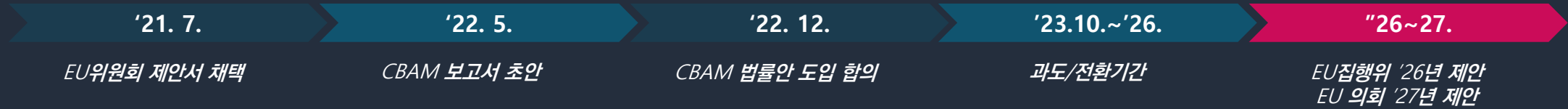


0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시행

EU는 탄소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역내 수준의 탄소가격을 수입품에 적용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

- (목표)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상향조정('30년 40%에서 55%로 조정)에 따른 탄소배출 역내 감소 및 역외 탄소누출 방지
- (시행) 6개 업종 대상 '23년 10월부터 과도/전환기간을 거쳐 '26년부터 시행

CBAM 입법 절차 일정



자료: Mio Tech Research, <https://www.miotech.com/en-US/article/114>

쟁점	잠정 합의 내용
시행일	2023. 10. 1. (전환기간: '23.10~'25.12)
대상제품	철강, 전력, 비료, 시멘트, 알루미늄, 수소(철강, 알루미늄은 2차 가공 제품 포함) * 전환 기간 중 유기화학, 고분자 추가 결정 **2030년까지 모든 EU ETS 대상 산업에 적용 목표

CBAM 작동원리 및 비용부담 수준

- ① CBAM 인증서 제출량(기본) = 배출량 X EU ETS 가격
- ② 해당 제품의 EU ETS 무상할당량
- ③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: ETS의 배출권 구매비용, 탄소세 등
- ④ 최종 납부 CBAM 인증서 금액 (=①-②-③)

자료: Kotra, EU탄소국경제도 주요내용 및 영향; 법률신문(2022-12-16) <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3867>
국회입법조사처(2023.2.20),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

04 암호화폐의 부상과 추락

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가 디지털 시대의 대안적 화폐로 부상한 바 있으나,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배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공급 구조로 국제사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

주요 암호화폐 시가총액



자료: Coin Metrics

시가총액 상위 5개 암호화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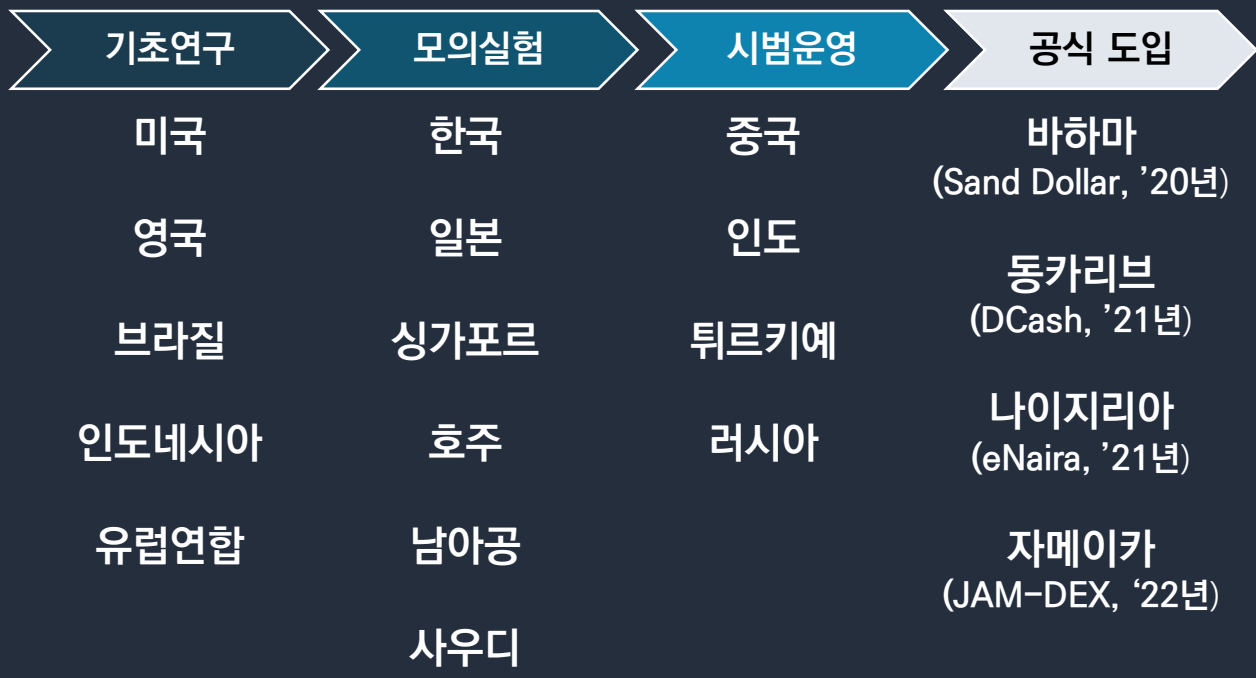
	코인명 (화폐단위)	시가총액 (억달러)	비고
1	비트코인 (BTC)	5,394.39	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, 최초의 암호화폐
2	이더리움 (ETH)	2,148.19	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, 스마트 계약 구현
3	테더 (UDST)	769.55	다중 블록체인 기반, 스테이블코인 1 USDT = 1달러
4	바이낸스 코인 (BNB)	530.11	홍콩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코인, 바이낸스 (블록)체인 기반
5	USD 코인 (USDC)	352.88	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, 1 USDT = 1달러

주: 23년 3월 21일 기준, 자료: CoinMarketCap

04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(CBDC) 도입 논의

민간 암호화폐 대응과 더불어 디지털 및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적 화폐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, 기관 간 거액거래 중심의 도매 CBDC 개발 및 연계도 활발히 진행

주요국의 소매 CBDC 도입 논의



도매 CBDC 연계 프로젝트

프로젝트명	참여국가	비고
프로젝트 헬베시아 (2단계)	스위스 및 상업은행	국제표준전문 ISO 2022 사용, CBDC를 기존 은행과 호환
프로젝트 재스퍼-우빈	싱가포르, 캐나다	해시 타임락 계약 프로토콜 도입
프로젝트 주라	스위스, 프랑스	증권대금 및 외환 동시결제에 동시공증 메커니즘 적용
프로젝트 엠브릿지	홍콩, 중국, 아랍에미리트, 태국 등	단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환전 및 외환동시결제 실행

05 향후 대응과제

전략적 생존공간 확보

01

- 복합적, 입체적, 현실적 접근
- 자유무역, 공정경쟁, 민주주의 및 친환경 등 기반 원칙 설정
-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추구



02

공급망 전략 수립

-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정책 및 상호의존성 무기화 등 고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망 전략 수립
- 공급망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수단 활성화

산업경쟁력 확보

03

-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검토
- 국제논의에 부합하는 탄소정책 추진
- 민간 금융의 역할 강화

04

구조전환 역량 강화

- 데이터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
-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 강화
- 미래형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고용 서비스 강화 등